

라오스, 바이오디젤 한국참여 요청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은 3월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Somsavat Lengsavad 라오스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양국의 투자·교역 및 에너지자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솜사왓 부총리는 메콩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과 바이오디젤 원료인 자파트로파 플랜테이션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발전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라오스 광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고, 바이오디젤 활성화를 위한 라오스 정부의 노력을 한국의 관련업계에 전달하는 한편 참여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화학저널 2007/03/27>